

#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 발명가의 길과 자세

### ■ 전문지식에 얽매이지 말라

전문지식을 버릴 수 없고, 거기에 얽매여 버림으로써 발상이 속박되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홀톤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그는 고체 헬륨의 열전도도를 측정하고 있었다. 그는 올바른 방법으로 실험을 했지만 거기서 나온 수치는 당시 믿어지고 있던 열전도도의 5백배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홀톤은 자기의 전문지식에 비추어 볼 때 아무래도 이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보류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늦게 새로운 측정법을 개발한 영국의 과학자가 자기의 측정법으로 고체 헬륨의 열전도도를 측정해본즉 역시 당시 믿어지고 있던 수치의 5백배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를 세상에 발표했고, 이 새로운 발견은 각광을 받았다.

자기가 먼저 발견했으면서도 이를 발표하지 않았던 홀톤은 “내가 만약 전문이라는 이름의 모자를 벗어던지고 창조란 이름을 모자를 썼더라면 그 애송이에게 당하지는 않았을텐데…… 하며 크게 후회했다고 한다.

### ■ 자신감을 가져라

발명을 하는 사람, 창조적 업적을 이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에 넘치는 사람들이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끈기도 없다. 나는 틀린 인간이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날 수가 없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첫째의 비결은 ‘아이

디어란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거든 무엇보다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 ■ 창조력을 길러라

인간은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에 몰두한다면 구김살없이 창조의 씨앗이 자라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인간은 내부에서는 창조와 비판사이에 끈임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창조력이 우위에 섰을 때 비로소 두뇌는 효과적인 회전을 시작하는 것이다. 스스로 물어 창조력을 발동시켜라.

### ■ 상식에 도전하라

미국에 메컴이란 사람은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다. 그는 이미 파버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텍사스의 버려진 유전지대 갱만을 찾아다녔다. 학자들조차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한 상식에 도전하여 결국 승리가 된 것이다.

세상 사람이 무어라고 하던 자기의 신념에 따라 정설과 상식에 도전하는 인간이 창의력이 있는 인간이다.

### ■ 뜻나기의 눈으로 보라

뜻나기의 눈이 전문가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이것이 창조의 단서가 된 예는 얼마든지 있다.

멜런이 가스 라이터를 시계방에서 팔아 성공한 것도 하나의 좋은 예이다. 시계방에서 판매한 이 가스 라이터는 처음부터 고급품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나타났다. 라이터 기술자도 아닌 일개 셀러리맨의 뜻나기 눈이 적중한 것이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첫째의 비결은  
 ‘아이디어란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거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 관계가 없는 것도 맞추어 보라

엮잇보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무리하게 들어맞춘다는 것은 발상을 전환함에 따라 상당히 유력한 방법이다.

전혀 관계없는 것을 무리하게 맞춘 다음 생각을 거듭한다. 그러면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이다.

■ 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때로 아이디어는 막판에서 잊어 버리고 있을 때 갑자기 솟아나온다. 그리고 또 막판에 몰린다. 한때, 잊어버린다. 이럴때 갑자기 생각한다고 하는 패턴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기분을 전환해야 한다. 다른 일을 하면서 그것을 잠시 잊는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 아이디어도 발효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아이디어맨, 즉 발명가와 과학자들을 상대로 조사·분석·정리한 것으로 ‘발상의 4단계’이다.

제1단계 : 준비기(의식적인 노력의 시기)

제2단계 : 품고 있는 시기(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의식적인 노력을 중단하는 시기)

제3단계 : 번득이는 시기(아이디어가 시각적 이미지로 번득이는 시기)

제4단계 : 검증기(번득 생각난 힌트가 음미되고 구체화되는 과정)

이처럼 아이디어도 발효식품처럼 발효기간이 필요하므로 조금씩 서두르면 안된다.

■ 궁지가 지혜를 낳게 한다

머리가 활발하게 움직여 지혜가 나오는 때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와 궁지에 몰렸을 때다. 이러한 때는 심혈을 기울여 자기 일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끔 자기의 정신 상태가 이완되었다 싶으면 스스로 코너로 몰아 궁지의 상황을 만들어 보라. 그리고 기필코 그것을 극복 해야만 한다.

필자의 경우 매월 1천매(200자 원고지)의 글을 쓰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해내고 있다.

■ 이질적 세계에서 힌트를 찾아라

전구와 보온병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전구는 밝게 하는 것이고, 보온병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능에 있어서는 전혀 이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전구 메이커는 불황일 때 보온병 제조에 뛰어들어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품질이 뛰어난 제품으로 궁지를 벗어난 것이다.

그 비밀은 전구의 제조에는 진공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이 회사는 그점에 있어서는 극히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전구와 보온병은 그점에 관한한 동일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한 방법만 고집하지 말라

강을 건너야 하는데 다리가 없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가는 사고법을 모르는 사람은 ‘배로 건너다’등 어떻게 하든 물위로 건너다는 발상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물속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늘을 나는 방법도 있고, 상류까지 올라가는 방법도 있다.

이처럼 아이디어의 세계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 것이다. 한 방법만 고집하지 말라. <♣>

<王然中 記>